

[해외산업간호정보]

간호연구의 최근 경향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이복임 /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저자는 본 글을 통해 지난 2년여간 텍사스주립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얻게 된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비록 저자가 연구했던 분야가 산업간호 영역은 아니지만, 연구 경험에 대한 소개는 유학을 준비하거나 해외학술지 게재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저자는 본 글에서 연구의 두 가지 측면 즉,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최근 경향을 소개할 것이다.

소수 민족에 대한 관심 증가

먼저, 연구대상에 대한 이슈로 미국 내 소수 민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 백인문화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제적인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경시되어 왔던 소수 민족들에게 차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내 소수 민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택, 식량,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 미국인구조사국(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은 2000년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64%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년간 비히스패닉계 백인은 7%의 인구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히스패닉은 48%, 아프리카인 아메리칸은 22%, 아시아인 아메리칸은 37%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소수 민족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가 가히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수 민족들은 식이와 운동습관, 도덕과 신념 등으로 인하여 질병을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인 아메리칸 여성은 가족의 요구를 최우선시 하고 자신의 문제는 최소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질병을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미래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할 소수 민족의 건강과 건강행태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관리를 위해서, 이들의 전통,

신념, 식이, 습관 등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 또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책임연구자이신 텍사스 주립대학교 임은옥 교수와 함께 수행한 eMAPA(Ethnic Specific Midlife Women's Attitudes forward Physical Activity), MOMS(Multiethnic Internet Study on Menopausal Symptoms)연구는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로부터 기금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건강문제 및 건강행태의 민족별 차이와 그 원인을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사회심리적 측정도구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한 민족별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기존의 사회심리적 측정도구 대부분이 서구 백인민족을 대상으로 개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이 소수 민족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항목에서 정확도 및 신뢰도가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정부와 간호학계는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지식의 확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 리서치

두 번째는 인터넷 리서치 연구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넓은 경우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eMAPA와 MOMS 연구는 모두 인터넷 리서치 방법으로 수행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심층조사 모두를 수행할 수 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연구자는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와 SANS/FBI recommendations에 근거하여 연구 웹사이트를 만든다. 연구에 대한 인터넷 홍보를 보고 해당 연구 웹사이트를 방문한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조사동의서와 설문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의 자격에 조건을 두는 경우, 예를 들어 아시안 중년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면 조사동의서를 받기 이전에 인종, 연령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기록하도록 하여 연구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양적 연구 뿐만아니라 질적 연구 또한 인터넷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연구원은 토론 주제를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질적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독려한다. 토론 주제는 가능한 세분화하여 자칫 논의의 핵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원의 적극적인 감시와 조정이 있어야 한다. 연구대상자들은 자신들이 편한 시간에 익명성을 가지고 글로 정리된 의견을 남길 수 있어 인터넷 연구 참여를 선호하는 편이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남긴 기록물을 가지고 분석에 활용하게 된다.

여느 조사방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리서치 방법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미국의 경우 중상류층이 인터넷 접근도가 높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에 비해 심층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복참여의 문제, 신뢰도 확보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IP 체크, 중복된 설문문항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리서치 방법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 내에서 각광받고 있다.

연구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에 미국의 연구경향을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미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일은,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비록 협소한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된 글이지만, 독자들기는 새로운 시각을 주고 실제 연구수행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